

2019 년 3 월 인도자용 소그룹(출애굽기)

저자: 배혁 목사, 샌안토니오 한인연합감리교회 (Rev. Hyeok Bae, San Antonio KUMC)/ TX

3 월 첫째주 소그룹 모임: 출애굽기 1:15-21

하나님이 두려운 산파

찬송가:

새 542(통 340) 구주 예수 의지함이 / 새 292(통 415) 주없이 살 수 없네 / 새 382(통 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는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기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와 그 이유를 말함으로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 본다.)

본문 이해:

존 비비어의 책 ‘무엇이 선인가?’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한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도자는 1980 년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 때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자 이를 막으려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야를 불러,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산파는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로왕의 명령은 하나님보시기에 죄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들의 집안을
홍왕하게 해 주셨습니다(1:21).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세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할 때, 세상의 두려운 존재를
이기는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잠 9:1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나 행동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속으로

1. 두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7)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1:21)

(그들의 집안을 홍왕하게 하셨습니다.)

삶속으로

1.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 견줄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주권자시기에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

2. 오늘날, 교회나 사회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는 거짓된 일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 서로 당파를 지으며 싸우는 일들
등이 있다.)

암송구절: 출애굽기 1:21

자녀와의 나눔

1.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3 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출애굽기 4:10-17

내가 누구이기에...

찬송가:

새 151(통 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 258(통 190)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새 217(통 36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는 이야기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해야 될 때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를 거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들은 가정이나 교회, 사회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본문이해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대답대신 '내가 누구이관대'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말기시는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왕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자신이 바로왕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바로를 대항할 만한
세력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세는,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모세와 같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더욱 관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힘이 없는 80 세에 양을 치는 별볼일 없는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속으로

1.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에게 노하셨습니까? (4:13-14)

(모세는 고집스럽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태도와 같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2.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4:10)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삶 속으로

1. 당신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교회, 직장 등에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해야 할 때에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염려하며,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다.)

2.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당신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주심으로, 자신의 무능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심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

암송구절: 출애굽기 4:11

자녀와의 나눔

1. 당신이 하는 일들 중에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나요?
2.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나요?

3 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출애굽기 17:8-13

손을 들고 싸우라

찬송가:

새 341(통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 새 353(통 391) 십자가 군병되어서 / 새 288(통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는 질문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경쟁력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강하거나, 지적으로 우월하거나, 사교성이 좋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본문 이해: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호와와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7:4). 하지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은 한번도 군대로서 전쟁을 치르거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으로 가는 편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이라도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첫 전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상대로한 첫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는 두가지 일을 행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칼로 아말렉 자손과 싸우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승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든 모세에게 달려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던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진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을 만났을 때에 승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을 의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함에 있음을 첫 싸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몸을 부딪치며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싸우는 것임을 이스라엘의 첫 번 전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쟁력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두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까?(17:11)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간구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승리가사람이 가진 전투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 주셨다.)

2.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17:12)

(모세의 손이 내려 오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삶 속으로

1. 당신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간구하는 모세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몰입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하는 모세를 보시며 그의 간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2. 당신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또한 당신은 누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말렉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함으로 승리가 있게 되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격려하고 도운 사람들이다.)

암송구절: 출애굽기 17:11

자녀와의 나눔

1. 당신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와 주심을 믿는 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

3 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출애굽기 28:1-5, 40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

찬송가:

새 267(통 201)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새 87(통 87)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새 595(통 372) 나 말은 본분은

여는 질문:

당신은 옷을 살 때에 주로 어떠한 기준으로 옷을 고르십니까?

(사람들마다 옷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 예쁜 옷을 선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양과는 상관없이 입기에 편한 옷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기능적인 면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고,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사람도 있다.)

본문이해: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여러 복잡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평범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의 옷감으로 만들고 가슴 부위에는 보석까지 달려 있는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론에게 지어주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28:2). 아론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아론이 입은 옷이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아론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제사장 옷이 불편하고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아론은 더 이상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8 절에 보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상에 때에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거룩한 옷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속으로

1.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서 어떠한 옷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28:2-4)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28:2-3)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다. 또한 그 거룩한 옷을 통해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삶속으로

1.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의 많이 있지만, 그 모습이 영화롭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의 변화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화와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된다.)

2.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암송구절: 출애굽기 28:2

자녀와의 나눔

1. 당신이 아끼는 옷은 어떠한 옷이고, 그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 월 다섯번째 주 소그룹 모임: 출애굽기 40:9-16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찬송가:

새 269(통 211) 그 참혹한 십자가에 / 새 456(통 509)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새 190(통 177) 성령이여 강림하사

여는 질문:

늘 사용하던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나요?

(어떤 물건을 보관할 때에 사용하기에 편하거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자리에 두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본문이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의 완성과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로 이루어져 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성막이 외형적으로 세워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모세는 성막을 이루는 기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것들을 배치합니다. 모든 기구들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했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성막 기구에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구로 성별합니다.

사실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재료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가져 온 것들입니다. 모세는 그 동안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것들 위에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구로 성별했습니다.

관유는 성막의 기구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물로 몸을 씻고 관유로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기름부음을 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구로 성별되었을 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없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별해서 드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속으로

1.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르라고 하셨습니까?(40:9)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다. 관유는 감람유에 몰약, 육계, 창포, 계피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다; 출 30:22-23)

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40:12-13)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부었다.)

삶속으로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정해 주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곳이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이다.)

2.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당신 삶의 어떤 부분을 성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주신 것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성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이나 재능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기도 한다.)

암송구절: 출애굽기 40:13

자녀와의 나눔

1. 당신은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나요?